

## Robert Vannoy 박사 , 신명기 , 강의 3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

andt

편집, 정식 및 수사학 비평

형식비평을 넘어서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개요에서 “양보적 복음주의” 2번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그 직전의 1. c로 백업하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도 준 유인물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여기저기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유인물에서 나온 거예요. 형식비평을 넘어서(Beyond Form Criticism)가 제목이고, 그 아래 세 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료비평과 형식비평으로 인해 발생한 성경 본문의 단편화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역사보다는 현재 형식의 통일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본문 분석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개발의.” 자,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 분석의 역사에서 우리는 다큐멘터리 소스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형식 비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소스를 넘어 소스에 결합된 개별 단위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본비평과 형식비평 모두 텍스트를 단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문학을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매우 지루한 작업이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런 종류의 작업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이제 관심은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 더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종류의 작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방법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비 단계와 궁극적으로 최종 형식을 산출한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기보다는 텍스트의 최종 형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편집 비평, 정경 비평, 그리고 더 나은 명칭이 부족하여 구약 본문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라고 부를 것의 밀접하게 관련된 방법론의 등장을 보아왔습니다.

## 1. 편집비평

그래서 첫 번째 편집 비평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접근 방식의 세 가지 범주를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편집비평: 이 운동은 마틴 노스(Martin Noth)의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Gerhard von Rad는 텍스트의 최종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학 비평과 형식 비평 모두 텍스트를 다큐멘터리 가닥이나 독립적인 문학 단위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문학 평론가들은 편집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출처를 결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문학적 가닥을 현재의 형태로 결합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의 편집자들은 문학 문서를 분리하거나 독립적인 스토리 단위를 분리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있는 참고문헌에 J. Barton의 *The Old Testament Method and Biblical Study* 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론에 대한 최근 조사를 받고 싶다면 Barton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Barton이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기초에 기초한 조사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론의 대부분을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성서를 읽는 방법론적 접근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Barton이 45페이지에서 말했듯이, '편집자는 독창성이나 지성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작업을 더 잘 수행하고 숨길 수 없는 불일치의 흔적과 현대 학자들이 지루한 거래에 사용했던 원자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 구불구불한 서사적 경향.'”

그러나 프란츠 로젠스화이트( Franz Rosenswhite)가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편집자를 상징하는 “R”은 “우리의 주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용어인 라베누( *Rabenu*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은 편집자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당신이 그들의 이론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 성경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넣은 것은 편집자이고, 당신이 성경을 받는 것도 편집자로부터입니다. 그는 J 저자, D 저자, P 저자 등이 아닌 여러분의 마스터, 즉 편집자가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성경 본문의 미약한 성장을 현재의 형태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넘어 편집자가 우리가 본문을 주조된 형태로 이해하도록 의도한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려는 게르하르트 폰 라드의 노력에 반영됩니다. 보세요, 최종 형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예비 작업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최종 형태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성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이전 시대의 문학적, 역사적 비평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확실히 성서 연구 분야에서 환영받는 것입니다.

Barton은 편집 비평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학에서 훈련받은 학생이 문학 비평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저자/편집자가 자신의 효과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분석하여 때때로 텍스트를 면밀히 읽기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왜

그가 자신의 자료를 그렇게 배열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작업의 일관성을 유닛들에게 주기 위해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EJ 영(EJ Young)은 다큐멘터리 가설이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충만함 속에 통일성이 있다고 오래 전에 지적했습니다. 만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이 이 가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오경이 실제로 보여주는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습니다.

1. Barton의 편집비평의 위험      Barton(56페이지)은 실제로 편집비평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고 그 자체의 기초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라지는 편집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 비평가의 요술 특성을 수행하면서 57페이지에서 “비결은 간단합니다. 비평가가 편집자 의 작업을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수록 그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편집자가 미묘하고 섬세한 예술성을 통해 자신 앞에 놓인 다양한 자료로부터 단순하고 일관된 텍스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출처의 존재가 처음에 확립된 증거를 더욱 줄였습니다 . 따라서 편집 비평이 너무 자신감있게 행동하면 우리는 더 이상 출처 구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일관적인 글로 끝나게 되며, 출처와 편집자는 연기 속으로 함께 사라지고 하나의 자유로운 글만 남게 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한 명의 작가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속임수가 비보수적인 성경 비평에 반대하는 근본주의자들 마음에 특히 소중하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그것은 비평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뽐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자신의 폭탄에 의해 폭발된다는 것입니다 . 또는 비유하자면, 편집자가 들어 있던 마법 상자가 열리면 편집자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그의 입장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등 비평가에게는 참으로 매우 무서운 전망입니다.

알다시피, 상황이 흥미로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스 비평과 형식 비평을 갖고 있고 최종 형식에 대한 관심과 이 모든 것을 통합한 편집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편집자와 사물의 통일성을 너무 강조하기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편집자가 작성자가 되도록 놔두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학 비평에는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

비평가들은 최종 편집자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소스를 텍스트의 최종 형식에서 일종의 통합으로 용접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편집비평을 실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자료를 거부하지 않고 비평을 형성하지만, 이들 비평가들은 최종 형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 비. 복음주의와 편집비평

형식비평과 자료비평의 모든 결론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편집비평을 받아들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편집비평 실무자들은 전통적인 자료비평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발표하는 목적을 식별하려는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타당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 방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대조되는 마태복음에는 왜 특정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특정 방식으로 설명됩니까?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헬라이어 성격과 반대되는 유대적 성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관객층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집 비평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그렇게 자료를 선택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것을 자신이 배열한 방식으로 배열했는가?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자신이 했던 언어와 어휘로 그것을 제시했을까?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편집 비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 역사적 신뢰성은 여전히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제 실무에서 종종 그렇듯이, 편집자가 신학적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 역사적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제는 종종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역사 사실을 제시하는 것보다 일종의 신학적 요점을 제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편집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종의 선입견된 신학 체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정보 출처를 구부리거나 조작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꽤 추측적입니다. 여기에 그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편집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 디. 편집 비평을 사용하여 Matthew에 대한 Gundry

Robert H. Gundry의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2의 마태 복음 주석을 둘러싼 논쟁(이것은 구약성서에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을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Gundry는 1983년, 아마도 84년에 복음주의 신학회의 압력으로 사임했습니다. 1984년 2월 3일자 *크리스챤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에 이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협회의 회원들은 매년 회비를 지불할 때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성명서에 서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Gundry는 계속해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논평에서 역사적 신뢰성을 실제로 위태롭게 하는 자료의 배열이 신학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Gundry는 Matthew가 Luke가 쓴 더 역사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드리(Gundry)는 마태가 들판의 목자들을 동방의 박사들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예시하고 강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은 같은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이고 현자들은 실제로

예수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그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신학적 목적은 목자들보다 현자들에게 더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자신의 자료를 그런 식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왜 ETS에서 압력을 받고 사임해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편집 비평: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기사를 참조하세요. Christian Today Institute, *Christian Today*, 1985년 10월 18일, 잡지의 이 연구소 섹션 1-10페이지; 그리고 Kenneth Kantzer의 "편집 비평: 조심스럽게 다루기 ", Christian Today Institute, 역시 *Christian Today* 의 같은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이것들은 복음주의자들이 편집 비평의 전체 영역과 어떻게 씨름해 왔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좋은 요약이자 대중적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학자들이 자주 그리고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극단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 Rogers와 McKim과 무오류

이것은 *본질적으로 편집 비평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이 모든 무오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 Rogers와 McKim의 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질문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오성 문제와 성경 연구를 위한 문학 비평 방법 사용에 관한 최근 책과 기사의 목록일 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트 중앙에는 Rogers와 McKim의 책이 있고, John Woodbridge의 리뷰인 "성경적 권위: Rogers와 McKim의 평가를 향하여"를 참조하세요. *Trinity Journal*, 1980. 저는 Woodbridge의 리뷰와 페이지 아래에 나열된 Woodbridge의 책, Woodbridge의 여러 기사가 아마도 이러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좋아요, 편집 비평에 관해 질문 있나요?

## 2. 정식 비평과 B. 차일즈(예일)

계속해서 정식 비판을 해보자. 정경비평은 문학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편집비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정경 비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단지 문학 작품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일 신학대학원의 브레바드 차일즈(Brevard Childs)는 아버지이자 교회법 비평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구약성서 개론을 성경으로* 썼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목이

작품의 관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서의 구약; 그것은 고대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자료 비평가와 형식 비평가가 구약을 취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서 정경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경적 접근 방식은 원래의 문학적 또는 미학적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신학적 형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최종 형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정식 형식이다. Childs는 “통시적 재구성” 과는 별도로 텍스트 자체의 무결성을 정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통시적 재구성은 과거로 돌아가서 텍스트가 현재의 형태가 되기까지 정확히 어떤 단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통시적 재구성이다. 통시적 , 동시적이 라는 용어 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는 성경의 전체 발전 역사보다는 최종 형태의 성경의 공시적 측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전체 역사 연구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세기 구약성서에 대한 많은 학문적 연구의 중요한 초점을 알려주는 출처에서 나온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Child

s의 글에서는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서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다른 여러 가지 주석도 썼습니다.

어린이들이 읽을 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가 성경의 정경적 형태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즈는 역사적 학문으로서 성경 문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출처의 정당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7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정경 형식의 권위를 주장하는 목적은 이 비판적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 본문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작업은 역사적 차원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 오히려 그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신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깊이 차원은 해석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텍스트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야훼 자료를 제사장 및 오경과 구별하기 위해 종종 해석자가 결합된 본문을 부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 계속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전통의 형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은 전체 통합 본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완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종종 그의 본문을 비스듬히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서 해석과는 다른 순서입니다. 설명하다.”

이제 나는 그 진술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일드가 생각하고 다음 진술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출처 및 형식 비평과 비교할 때 그의 정경적 관점만큼 신선하고 도움이 되며, 그는 역사 사이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는 이 통시적 재구성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신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 분야이며 즉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von Rad와 그 이전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신앙, 과학적 분석과 신학적 중요성 사이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Von Rad는 Childs보다 더 멀리 밀어붙일 수 있지만 Childs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믿음을 받아들이고 역사적 비평 방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결국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동일한 텍스트의 최종 형식에 대한 그의 초점 때문에 Childs의 인용문을 작성합니다.

### 3. 수사적 비평과 로버트 알터

자, 셋째, '수사비평'의 문학적 접근입니다. 이것을 문학 비평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문학 비평은 수년에 걸쳐 매우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접근 방식을 우리는 수사 비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성경 문헌 분석의 최신 경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강조점은 본문 분석에 있어 주로 역사적 관심에서 주로 문학적 관심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쓴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권의 책은 1981년 Robert Alter의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와 1981년 James Kugel의 *The Idea of Biblical Poetry* 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구약성경의 역사적 기록에 있기 때문에 알터의 책이 강조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큰 영향을 미쳤다. Robert Alter의 저서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에서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과 방법의 파생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히브리어 및 비교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알터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문학형식비평의 정당성과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정의한 성경 본문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언어의 교묘한 사용, 아이디어의 변화하는 유희, 관례, 어조, 소리, 이미지, 구문, 서술적 관점, 구성 단위에 대한 세밀한 식별력의 다양한 다양성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 단테의 시, 셰익스피어의 희곡, 톨스토이의 소설 등 다양한 비평적 접근 방식을 통해 조명해 온 일종의 훈련된 관심입니다.”

이제 그것은 저자가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사적 장치 등을 보려고 노력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비평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최종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있는 문학의 특성을 보는 것만큼 그것이 어떻게 최종 형태에 도달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면서 성경이 신의 계시라는 개념을 거부하고(20페이지) 구약의 이야기 자료를 역사화된 산문 소설로 특징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균등한 연속체이며 실제 역사적 세부 사항이 끊임없이 뒤섞이는 것입니다. 특히 후기 시대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순전히 전설적인 민속 역사, 때때로 신화적 전설의 수수께끼 같은 흔적, 병인학적 이야기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 국가 건국의 아버지들의 가부장적 허구, 영웅들의 외투 꼬리, 경이로운 일을 하는 신의 사람들,

국가 역사의 발전과 관련된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들의 매우 유사한 발명품,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허구화된 버전.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로 제시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인간이나 이스라엘의 운명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인용문 33쪽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히브리 작가들이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소설은 이를 수행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는 데이비드 이야기가 역사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서술이 아니라 특정 주제적 편견과 심리학에 대한 그 자신의 놀라운 직관에 따라 자료를 구성하는 재능 있는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캐릭터의. 셰익스피어가 그의 역사극에서 영국 역사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이야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는 역사화된 소설과 허구화된 역사라는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서사에 따라 그는 허구화된 역사나 역사화된 허구 중 하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 내러티브의 산문을 읽고 분석해야

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반복 기술, 과묵함의 기술(그것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의 일종의 공백, 포함되지 않은 특정 정보 조각으로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형 장면의 사용. 그는 종종 성경 서술자들이 취하는 전지적 입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 이야기에서 화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아마도 전지성과 방해성이 결합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다 알고 있다.

1. 전지적 서술자      이제 우리는 영감의 관점에서 저자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평범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지적 서술자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야기를 창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지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을 심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작가이기 때문이지, 그가 영감을 받아 실제 역사적 인물에 대해 그러한 종류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언급할 책에서 라일 에슬링거(Lyle Esslinger) 라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왕권*:

사무엘상 1-12장을 읽었고, 그는 알터처럼 책 전체를 통해 전지한 해설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전지적 서술자는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얽힌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그는 인물을 창조하는데 그 인물 중 하나가 야훼이다. 사무엘상에 대한 Esslinger의 분석에서 모든 작가가 이교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처럼 전지한 서술자는 야훼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영감받은 작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전지한 서술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실제로 완전히 다른 사고의 세계에 있습니다. 비록 그 영감받은 작가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전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지적 서술자의 특성은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의 에 슬링거 처럼 사무엘서 1장을 보면 한나의 부모는 아이가 없었고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지한 서술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 주님은 그녀의 태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받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글썄요, 전지적 화자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는 그 이야기를 창조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사실이 아닌 진정한 문학입니다. Esslinger는 사사기에서

왕기로의 전환기, 즉 하나님의 왕권과 위기의 시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이야기꾼, 서술자의 줄거리와 서술 기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 모두를 속여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속이고 속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놀라운 음모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는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분석하고 기술, 장치, 작가의 견해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서 이야기에서 화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전지성과 비간섭성이 결합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Esslinger는 또한 주제별 주장을 전개할 때 핵심 단어의 사용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분석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완벽한 예술성은 우리가 이 연구 과정에서

고려한 성경 이야기의 주요 기술 대부분을 정교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모티프의 반복, 주로 대화를 통한 성격, 관계 및 동기의 미묘한 정의, 특히 대화에서의 활용 및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도입된 축어적 반복, 내레이터의 차별적인 전환은 전략적이고 암시적인 논평 보류에서 가끔 전지적 개관을 과시하고, 허구적 주제의 다면적인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 소스 몽타주 지점을 사용합니다.”

#### 비. 기타 수사적 비평

이제, 성경 이야기 자료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분석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Adele Berlin, *Poetic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1983. Lyle Esslinger, 이 책 *Kingship of God and Crisis*, 1985. JP Fockkelman, *사무엘서의 서사 예술과 시*, 1981. EM Gunn, 두 권의 책, *Story of King David, 장르 및 해석*, 1978 및 *Fate of King Saul*, 1980. P. Mishcal *1 Samuel Literary Reading*, 1986. Meir Sternberg,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1985,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짧은 목록일 뿐이지만, 나오는 자료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지난 5년 이내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서술과 같은 수사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완전히 새로운 추진력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대부분 오래된 비판적 방법론의 엄격한 결과에서 반가운 변화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줄거리와 담론 분석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소스의 중요한 텍스트 분할을 원래 별도의 문서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내러티브의 통일성을 다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복음주의자들과 수사학적 비평 이 방법을 활용하는 복음 주의자들은 Longacre와 Wenham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십시오. Longacre, 3페이지, 3분의 2 아래에 "요셉, 신의 섭리 연구, 이론 텍스트 및 언어 텍스트, 창세기 37장과 39-48장 분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인디애나에 있는 Eisenbrauns 에 의해 몇 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Longacre는 몇 년 전 또는 1년 전인 1986년에 출판된 "누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는가"라는 책을 해리스와 내가 MacRae 박사를 기리기 위해 편집한 책에 "누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는가"라고 썼습니다 . 그가 하는 일은 조셉 이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소스 분석이 실제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종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소스에는 통일성이 있어 사물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종류의 방법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Wenham은 다음 페이지 4에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Wenham, “The Coherence of the Flood Narrative,” (1978)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함께 전통적으로 J로 나누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던 창세기 6-9장도 다음과 같은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종류의 소스 비판적 분할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방법을 활용하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 본문 비평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비복음주의자 비복음주의자들의 자료 비평에 대한 비슷한 반대에 대해서는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라일 에슬링거(Lyle Esslinger)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그 책에는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가 없습니다. 꽤 대조적인 것. 그러나 그는 사무엘 1~12장이 여러 출처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 즉 문학적 통일체라는 비판적 학자들의 일관된 합의에 직면하여 주장합니다. 흥미롭군요. 그의 접근 방식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의 통찰력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2장에서 문학적 통일성을 주장하는 라일 에슬링거(Lyle Esslinger)를 보십시오. 또한 참고 문헌 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Keith Kawada와 Quinn을 참조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 1-*

11장의 통일성; 그게 바로 이 작은 책이에요. 이러한 문학적, 수사학적 분석을 통해 그는 창세기 1-11장의 문학적 특징에 따른 통일성을 주장한다. 그는 역사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일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비복음주의 문학적 접근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말은 성경적 역사성을 부정함으로써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특히 당신의 참고문헌 3페이지에 나열된 포켈만(Fockelman)의 경우, 서사적 기법에 대한 탐구가 너무 과도해서 발견된 구조 중 많은 부분이 포켈만의 상상력에 더 많이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는 서술 자체의 고유한 특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중 일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Fockkelman의 책에 대한 한 리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몇 가지 드러나는 내러티브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퀴즈의 늪에서 이를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어느 누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가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을 잘못 설명했다는 셰익스피어 비평가에 대한 존슨 박사의 논평을 떠올렸습니다.”

합의 없음

오늘은 합의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수사적 종류의 비평, 문학적 접근, 특히 내러티브 자료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큰 일이야. 이것이 바로 지금 가장 많은 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비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고,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역사성에 대한 완전한 부정과 결합됩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일부 사람들 사이에는 소스 비판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소스의 중요한 종류의 모든 항목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합법성을 부정하지 않고 최종 형식으로 작업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소스가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종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실제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합의는 없지만 논쟁은 많습니다.

“구조주의”는 언어의 역학에 훨씬 더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관여하는 마지막 문학적 접근 방식의 파생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조주의에 대해 지능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두겠습니다. 범주.

질문: 다른 종교 저작물도 성경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니까?

답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 경험은 성경에 관련된 사람들의 영역에 속하며 저는 기본적으로 유대-기독교인 서구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동의 아랍 세계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극동에 살았다면 우리는 코란이나 공자,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종류의 문학적 분석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작품보다 성경에 대한 비평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학 작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문학 작품으로만 본다면, 이만큼 영향을 미친 문학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과 같은 세계 문화. 셰익스피어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경전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문학이므로 종교의 3차원 전체를 논의에 개입시킨 것입니다. . 요점은 성경을 문학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학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은 민감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CS Lewis, 역사 저술 및 문학 평론가가 그리워함

구약의 역사 기록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면 이쯤에서 그만 두겠습니다. 문학 비평의 전체 영역 - 저는 수업에 들어오기 직전에 CS Lewis가 쓴 기사에 손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아마도 50년대 후반에 *Christian Today* 에 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을 주제로 항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S Lewis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그가 글을 쓰게 된 상황, 즉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특정 가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피어스 플라우맨(Piers Plowman)* 과 요정 여왕(*Faerie Queen*) 의 비평가들은 그 작곡의 역사에 대해 거대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해석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럴듯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확률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구성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그들의 주장이 옳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선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는 학자가 Langland나 Spenser에 전념하는 것보다 평론가가 내 책에 대한 연구를 덜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고 학자가 부족한 다른 장점에 의해 보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취향과 의견의 흐름을 받으며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의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런 종류의 일에 능숙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 세대, 내 시대, 그리고 아마도 내가 움직일 서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나는 공통의 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는 적어도 학자들이 죽은 자에 대해 추측하는 데에 적합한 것처럼 나에게 대해 추측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옳은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에 대한 비슷한 추측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확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그 추측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스펜서와 진짜 랭랜드와의 5분간 대화가 그 힘든 일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추측에서 리뷰어의 오류는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해왔습니다. 그의 임무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이러한 추측은 과녁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편견 없이 글을 쓴다고 확신합니다. 내 책에 관해 쓰여진 상상의 역사는 결코 항상 불쾌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별 상관이 없다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문학 평론가들이 자신의 책을 쓰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일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설적으로 재구성하는 수단을 통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루이스 시대에 100년 전, 1,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당신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그랬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추측이됩니다. 제 생각엔 이런 종류의 작업 중 90~95%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는 지극히 추측적이고 가설적이다.

각본: Matt Petrick , Brett Olsen, Ben Senning , Allison Chaponis , Sarah Boyd

편집자 Abigail Searles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